

2월의 기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1.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2. 2020년 경자년에도 계속해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4.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DCEM을 잊지 않고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박다임,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내과의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비타민 비전(Vision)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평균 60대 전후에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빼놓습니다. 그것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길게 살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퇴한 사람의 40%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이 없으니 무기력하고 우울할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어떤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프고 입맛도 없고 눈까지도 침침합니다. 좀 봐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비타민 V가 부족하군요. 왜 비타민 V를 안 드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비타민 V가 뭐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귀한 것이지요. 비타민 Vision(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있는 비타민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V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깐 머리가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우울하고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아픈 것입니다. 꿈을 잃으면, 몸도 아프고 나중에는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말하는 꿈과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당히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 7:7-8)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가슴을 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an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신년축복성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 짐 맡기고 네 입을 넓게 열라”



9월 대만성회 1



9월 대만성회 2



11월 동경성회



11월 태국성회

2020년 '신년축복성회'가 1월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믿음의 진전을 다짐하려는 성도들로 대성전은 예배 시작 전부터 만석이었다. 교회는 보조 의자를 준비하고 교회 내 모든 성전을 개방해 성도들의 불편을 덜었다. 이날 성도들은 복음전파의 열정을 회복해 우리 교회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방주 가 되기를 간절히 통성 기도했다.

예배에서 DCEM 총재 조용기목사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시 55:2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새해에는 걱정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희망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짐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도로 찾아 간다”면서 “마음의 짐을 향해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하라”며 “예수님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이다. 마귀에

게 눌린 자는 해방을 얻고 가난하고 고난 당하는 자는 은총을 또 죽은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희망이 생긴다”라고 피력했다.

조목사는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올 해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에 맡기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한 해가 되기를 격려했다.

예수 보혜사와 성령 보혜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부름을 받고 곁에 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보혜사로 활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을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제자들 곁에 보혜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한 분의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를 결혼시키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의 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대화도 하지 않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2. 우리를 위해 오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오래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병원에서 폐기종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폐기종은 합병증이 무섭다. 만약 폐포가 터지면 생명이 위독하니 그럴 경우 곧장 응급실로 가야 한다. 혹시라도 지방에 내려갈 때는 산소 호흡기를 꼭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한쪽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차서 운동도 못하고 세수를 할 때도 양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빠져서 그 길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폐기종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폐가 약한 상태라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으려고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 드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폐기종 터진 것이 고쳐졌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때 온몸에 전율을 느껴지면서 상체가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에 식욕이 생겨서 이틀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되고 다음날 아침, 검사를 했는데 놀라게도 터졌던 폐포가 원래대로 나아져서 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고 싶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어 주셔야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셋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

해서는 생각 꿈 믿음과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을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던지 간에 그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꿈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내일은 절망입니다.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만 바라보고 그것에 치우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작년보다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꿈을 품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줄에 묶여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찔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낭떠러지 곁에 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낭떠러지까지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삶에는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4차원의 믿음을 가지면 3차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지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건강 한 나의 모습을 먼저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저의 영혼과 육체가 삶의 환경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해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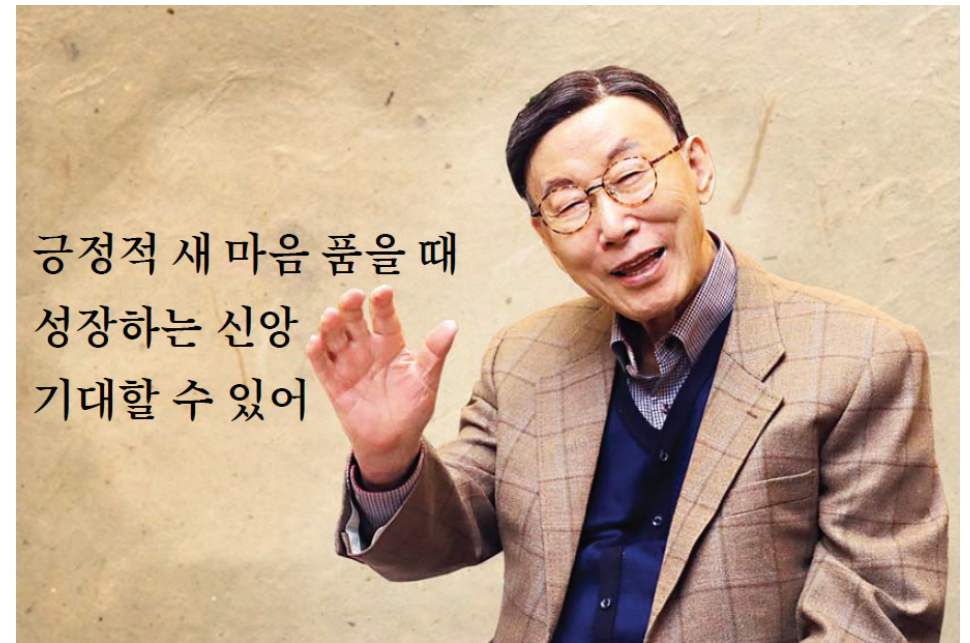
[신년 인터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사님은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 저는 많은 대중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국을 알리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 인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더 힘쓰고 싶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조용기’를 일으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귀에 유혹되지 않고 십자가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철저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제가 앞서 시행하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올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지난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증오와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오와 갈등을 종식시킬 소통과 화해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는 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져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산다. 내 길이 옳다 네 길은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살면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혼을 잘 받고 사랑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새 마음 품을 때 성장하는 신앙 기대할 수 있어

- 2020년은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교회와 크리스천은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려면 기독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고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길로 삼고 따르면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안 믿는 내가 저희보다 낫다”라는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면 교회는 결코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실히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의 2020년을 맞이하며

그 동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해 대만을 비롯하여 일본, 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으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으로 잠시 눈을 돌리면 종족간의 전쟁과 테러, 지진, 산발 등의 불안과 두려움의 사건들이 매일의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계획들을 정확한 시간에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EM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사역에 더욱 열심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항상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 후원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에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간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가정 위에 채워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